

민선 7기 환경보다 개발 편중

최근 3년간 제주도정 예산편성 분석 결과 국토·지역개발 분야 최근 3년새 2배 증가 지하수·자연환경보전 예산은 매년 감소세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예산 편성에 있어 환경분야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비중은 크게 늘며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제주의 자연과 물자원 등의 청정환경을 지키는 것보다는 주택·도로 등의 개발에 더 무게를 둔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25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세출 규모는 4조9753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난해의 4조4935억원보다 4818억원(10.7%) 늘었다.

14개의 세출분야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조1389억원으로 가장 많은 22.9%에 이른다. 이어 일반공공행정(10.8%), 농업해양수산(10.8%), 수송 및 교통(8.1%), 국토 및 지역개발(8.1%), 산업·중소기업(6.6%), 문화 및 관광(5.9%), 환경보호(5.7%), 공공질서 및 안전(3.1%), 교육(2.4%), 보건

(1.4%) 등의 순이다.

이들 대부분의 예산 비중은 연간 약간의 증감이 있었다. 하지만 환경보호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 변동은 이에 비해 변동폭이 컸다. 최근 3년간 환경보호 예산 비중은 2018년 7.2%, 2019년 6.9%, 2020년 5.7%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비중은 2018년 3.5%, 2019년 7.0%, 2020년 8.1%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예산도 환경보호는 2018년 3008억원에서 올해 2819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은 이 기간에 1443억원에서 404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를 비롯해 지하수 등 수질의 보전·개선·관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대기 및 기후의 보호,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생태계 보전관리, 해양환경 등의 관련 업무다. 해당 예산은 제주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생활환경 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에 쓰인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개발, 하천관리,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역·도시개발,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 관리 운영, 주택관련 정책 수립·시행, 지방산업단지 등의 업무가 해당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과 제주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다.

이에 대해 예산 편성에 있어 장기 미집행 도로와 도시공원 등의 시대적 예산 반영과 함께 제주도민의 생활안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주의 환경분야에 예산 비중을 더 뒀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 분야와 관련 "앞으로 5년(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환경 분야의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비중을 연간 10~12%대를 유지, 우수울제교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모두 4조31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25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이어 도내 소규모 초·중학교에서도 등교수업이 이뤄진 가운데 제주시 구좌읍 평대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초·중·고 과대학교 32개교 격주 등교 도교육청 등교수업 방안... 고3·중3과 초 1·2학년 제외

제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가 이뤄진다. 그외 학년은 과대학교를 중심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 격주 등교를 실시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등교수업 운영 세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에 이어 27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의 등교수업을 정상

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교육청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안전한 등교수업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 밀집 최소화과 학생 접촉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고3과 중3, 초1·2 학년을 제외하곤 과대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 격주 등교를 벌인다.

과대학교는 학년(군)별 격주 등교를 원칙으로 전체 학생 수의 2/3 수준 범위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했

다. 그 외 학교도 학교와 지역연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과대학교 기준은 초등학교 학생수 900명 이상(제주시 12개교, 서귀포시 3개교), 중학교 700명 이상(제주시 9개교), 고등학교 제주시 평준화 일반교(8개교)다.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앞으로 4주간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현재 방안의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외국인 관광객 급감... 업계 '시름'

지난 달 1100여명 그쳐... 전년대비 99.2% 감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만명도 채 안 되면서 제주 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59명으로 전년 동월(13만 9360명) 대비 99.2%나 감소했다.

월별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살펴보면 1월에는 14만560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4% 증가했으나, 2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2만 9229명으로 줄더니 3월에는 358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국인 보타리상 등이 주 고객인 대기업 면세점은 간신히 운영을 이어갈 정도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주 시내 한 대기업 면세점은 지난해 5월 한달 500여억원에 이르던 매출액이 올해에는 100여원을 조금 넘는 정도로 급감했다. 이마저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판매 매출이 대부분이다.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해오던 면세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고 있으며, 영업시간도 1시간 30분 단축했다. 특히 면세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돌봄휴가, 무·휴급 휴

가, 업무 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며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2월 개장한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의 경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4년 동안 누적 적자 160여원을 기록하며 지난달 영업을 중단했다.

제주 관광업계는 관광진흥기금 신청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18일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용자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총 1559업체가 1889여원을 지원받는다.

김현석기자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30% 경감 추진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일환

오는 10월 첫 부과를 앞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제주도가 한시적으로 3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도민들의 부담 완화와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경감되는 액수는 당초 부과예상액인 105억원(4498건) 범위에서 30%인 대략 3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공실·휴업 및 교통량 감축 이행 경감 등을 제외하면 올해 부과액은 대략 4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올해 10월부터 첫 부과된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1000㎡ 이상 상업용·영업용 시설물 소유자가 대상이다. 도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해 전수조사와 교통량 감축 경감 신청 및 이행 확인을 진행

해오고 있다. 이태윤기자

Ora & Coffee 오픈!

2층

제주 최초 LG Z:IN 창호전시장 [오라점] 오픈

* 신축공사(주택, 상가) 맞춤형 창호제안, 설계 지원
* 리모델링 공사 상담 환영!!

최고의 고객 만족실현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책임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를 저희 한진시스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2020년 HIT 상품

(발코니창, 시스템창, 중문, 도어, 유리등) 다양한제품 및 2020년형 신제품 비교 체험(인테리어, 가구 업체와 연계)

당신을 위한 창호 전문 상담

1F: 전시장

2F: 카페 내부

LG PVC 발코니창 (유리난간대)

LG Z:in AL 슬림3연동 중문

LG Z:in AL 스윙중문

LG Z:in ABS도어

KCTV 해역사

(주)한진시스템

우정골프연습장

관드레점

LG아우시스 제주대리점

- 시스템창호
- PVC창호
- A·L·유리

[주] 한진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2015-07-05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제주시 아연로 175(오라이동)

문의 TEL.711-5169